

막말 정치인, 내년 총선 그들을 기억하자

무등칼럼



박지경 정치부장

정치인들의 막말이 끝 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막말은 심각하다. 지난 2월 5·18 공청회에서 이종명 의원은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다”고,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들은 괴물 집단”이라고 각각 말했다. 막말을 넘어 망언이었다. 같은 달 전당대회 때 김준고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저만개 무슨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어 3월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표현을 했고 4월에는 차명진 전 의원이 세월호 유족에게 “진짜 장하게 해쳐 먹는다”고 막말했다. 지난 달 김무성 의원은 “다이너마이트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 버리자”고 말했고 나 원내대표는 ‘달창’, 김현아 의원은 ‘한센병’ 등의 표현으로 문 대통령 지지자와 문 대통령을 각각 비하했다. 급기야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이 있는 것 같다”는 말까지 했다.

이에 황교안 대표가 지난 3일 ‘심사일인(深思一言)해 달라’고 경고했지만 막말 행진은 멈추지 않았다. 경고 직후 한선교 사무총장은 회의장 밖 복도바닥에 앉아 대기하던 기자들을 향해 “아주 걸레질을 하는구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6일 차명진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썼다. 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좌우이념을 극복한 애국을 강조하면서 ‘김원봉’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었으나 수준 이하의 발언이었다. 원래 한국당의 막말 대표선수(?)는 홍준표 전 대표였다. 그는 상대당 지도부를 향해 독설하는 게 예사였다. 당내 일부 세력에 대해 ‘바퀴벌레’ ‘암덩어리’ ‘연탄가스’ 등 단어를 써가며 비난했다. 막말 논란은 비단 한국당 만의 문제는 아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당의 손학규 대표 면전에서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 손혜원·홍익표 민주당 의원 등도 막말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사람은 누구나 실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은 공인이다.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커 그들의 말 한마디가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모르지 않을 정치인들이 막말을 서슴지 않는 이유는 지지층 결집과 인지도 상승 효과, 즉 정치적 이익을 노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의 비판을 받더라도 현 정부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국민을 자극, 지지층을 확고히 하고 본인 인지도도 높인다는 전략이다. 우리 정치권은 지금 여당과 제1야당이 ‘강대

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의석수 면에서 다당제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양당구도나 다름없다.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던 지난 총선 이후 연정에 의한 다당제 정착이 기대됐지만 실현은 감감 무소식이다. 양당구도하에서는 ‘모 아니면 도’라는 승자독식 인식이 복식될 수 없다. 이 때문에 자기 진영의 확실한 지지를 얻기 위해 상식을 벗어난 막말과 장외투쟁 등 과한 행보를 한다. 잘 되면 정권을 잡고 아니면 제1야당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정치구조에서 나타나는 폐해다. 이 같은 구조는 남북분단 이후 계속된 이념갈등에도 원인이 있다. 양 극단 세력의 목소리만 들리고 중도세력은 발 불일 곳이 없는 정국은 국민 선택마저도 양 극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한다. 결국 개헌을 통한 권력 분산,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통한 이념갈등 해소만이 이 같은 정치구조를 깰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막말의 원인이 우리 정치구조에 있다하더라도 더 근본은 정치인들의 인격적 결함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막말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것은 지도자로서, 또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내년 총선을 300여일 남기고 유권자, 국민에게 호소한다. 정치인의 막말이 싫으면 그들을 심판하라. 개헌 또는 통일 등 어려운 해법 말고도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다.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가 해야 할 일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간문제라지만

기고



김용한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장 수의학 박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지난달 북한 자강도 우시군 소재 북상협동농장이라는 곳에서 돼지 99마리 중 77마리가 죽고 나머지 22마리를 살처분하였다고 한다. 북한에서도 이 질병이 얼마나 위협적이었으면 발생 직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했는지 짐작이 간다. 다행히 중국과 접경지역에서 발생되어 얼마간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보이거나, 이도 언제 휴전선 근방까지 내려올지 모르는 일이다. 지난해 8월 아프리카와 유럽, 일부 러시아에서 발생하던 ASF가 중국 요녕성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전역으로 급속히 퍼졌고, 거대한 중국대륙의 위쪽 몽골과 아래쪽 베트남에서도 발생하였다. 이제는 북한까지 발생했으니,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아프리카 28개국, 러시아, 헝가리 등 유럽 13개국, 중국과 북한 등

아시아 5개국에서 발생되고 있다. 돼지가 ASF에 걸리면 아무런 증상 없이 갑자기 100% 폐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42℃ 이상의 고열의 발열 증상 이후 높은 폐사율로 이어진다. 돼지들이 한데 겹쳐있거나, 비틀거리기도 하고 호흡곤란과 침울증세도 나타난다. 코는 혈액이 섞인 점액성 거품이 있는 분비물을 흘리기도 하며, 먹이를 먹지 않으며 복부와 피부말단부위에 출혈 소견을 보인다. 이 ASF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흔히 발생해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돼지열병’과 매우 유사한 증상을 보이므로 이들 질병과의 감별진단이 필요하다. 현재 ASF에 대한 백신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속한 정밀진단만이 중요하다. ASF는 바이러스 질병이다. 아스파바이러스과(Asfarviridae), 아스파바이러스속(Asfivirus)에 속하는 약 200nm 정도의 DNA 바이러스로 23개의 유전형으로 구분된다. 입이나 비강을 통해 전파되기도 하지만, 진드기에 물려 피부나 피하를 통하여 걸리기도 한다. 자료에 의하면 과거 비발생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경로는 공항만을 통해 열처리지 않은 돼지고기 잔반을 통하여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ASF발생 이후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체계 구축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ASF 병원체를 검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기법 도입과 진단 시약을 긴급히 마련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왔다. 또한 광주지역 양돈농가 중 잔반급여 농가와 방역취약농가에 대해 신속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새벽 도축이 이루어지는 축산물작업장에 출하되는 돼지에 대해 한 마리씩 개별 임상검사를 강화했다. 아직까지 특이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아 다행스럽다. 하지만 이번 북한에서의 ASF발생 보고는 심각한 상황으로서 남의 일로 여길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 우리 축산 농가를 비롯한 가축방역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그동안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통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가축방역을 더 한층 강화해야함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ASF 유입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지역민 모두가 동참해야한다. 특히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이 많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지역으로서는 멧돼지에 대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도 해외여행 시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여행 후 축산물 휴대나 축산물가공식품도 절대 반입하지 않는 것이 ASF 유입의 중요한 차단방역이 될 것이다. 아울러 양돈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자국의 축산물 휴대와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양돈농가에서는 매일 축사에 대해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ASF 의심 돼지가 발견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시간문제라지만 이처럼 모두가 힘을 합쳐 철저한 차단방역을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프리카돼지열병 또한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

발언대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주의해야

열탈진, 일사병, 열사병은 한여름 폭염기에 흔히 3대 온열질환이다. 열사병은 고온다습한 밀폐된 곳에서 작업이나 운동, 수면 시 발생하기 쉽다. 몸은 뜨거운데 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서 목이 축축하고 서늘하며 심장박동과 호흡이 이상이 생긴다. 상승한 몸의 열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의식장애와 혼수 조짐이 보이기 전

에 응급실로 빨리 옮겨 체온을 낮추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다. 열탈진(열피로)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수분 보충이 원활하지 않거나, 장시간 땀을 많이 흘리면서 염분이 적은 물만 보충했을 때 흔히 일어난다. 대개 땀을 계속 심하게 흘린다. 목부위가 다른 피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갑다. 서늘한 곳으로 이동시켜 옷을 벗기고 체온을 낮춰

줘야 한다. 노약자나 환자는 응급실로 이송해야 한다. 일사병은 더운 공기와 직사광선을 오래 받아 급격히 올라간 체온을 제대로 낮추지 못해 생긴다. 증세와 대처방법은 열탈진과 비슷하다. 수분 보충이 안되면 탈수증이 일어나며, 갑자기 땀이 나오지 않으면서 열사병으로 진행하여 사망에 이르게도 한다. 그러므로 119신고하여 응급처치 후 신속한 이송이 필요하다.

최성영(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사설

광주세계수영대회 기념비적 대회로 치르자

세계인의 수영축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이제 한달도 채 남지않았다. 광주시와 대회조직위는 성공 개최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 이번 대회에는 12일 현재 196개국에서 6천300여명이 등록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됐다. 대회가 개막되면 전세계인의 시선이 광주로 모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가 ‘세계수영 중심도시’로 우뚝서는 역사적 현상이 되는 것이다. 지구촌 한마당 수영 축제를 기념비적 대회로 만들기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중이다. 선수촌과 경기장 시설은 이번 주에 모든 준비가 마무리 된다. 역사적 현장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시민들의 참여 열기도 뜨겁다. 다만 흥행에 영향을 줄 북한 선수단 참여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북한의 특수 상황을 감안하면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북한은 대회 막판에 참가를 통보하는 전례가 있었다. 엔트리 마감일이 이미 끝났지만 희망의 끈을 놓을 일이 아니다. 북한도 평화를 바라는 세계시민들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아

야 한다. 특히 민족 공동 번영의 장을 마련하려는 우리의 순수한 초심을 받아주어야 마땅하다. 광주시와 조직위의 노력으로 막판 반전을 기대한다. 대회 개막을 눈 앞에 둔 상황에서 성공대회의 기간이라 할 입장권 판매도 아직 안심할수 없는 단계다. 조직위가 판매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판매율을 50%대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대한민국 위상으로 보나 광주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전국민의 관심이 절실하다. 관중 없는 세계수영대회는 상상할 수 없다. 이같은 관심이 필요한 이유는 이번 대회가 단지 광주만의 대회가 아닌 전국민이 성공 대회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대회에는 박태환급 국제적 스타가 없다. 그렇수록 세계적 스타 마케팅이 필요하다. 스타들이 즐비한 만큼 그들을 부각 시켜서라도 국민적 관심을 끌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수영대회는 광주에서만 치러지는 동네 대회가 아니다. 대회 성공은 대한민국의 성공이다. 남은 기간의 노력이 대회 성공을 좌우한다는 걸 잊지 말자.

장한 U-20 대표팀 내친김에 사상 첫 우승

우리 U-20 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FIFA 주관 대회에서 남자 축구가 결승에 나선 것은 전무하다. 우리 대표팀은 12일 오전 3시30분(한국 시간) 폴란드 루블린의 루블린 스타디움에서 열린 에라도르와의 U-20 폴란드월드컵(2019) 준결승전에서 수비수 최준이 차넣은 결승골을 잘 지켜 1-0으로 승리했다. 4강전에서 강호 세네갈을 물리쳤던 대표팀은 또 한번의 빛나는 전적을 거두었다. 우승의 문턱에 이른 대표팀의 물 오른 기량은 결승한 마내 이강인(발렌시아)의 발끝에서 시작됐다. 이강인의 절묘한 패스가 최준의 결승골로 이어져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다. 세네갈전 등을 비롯해 1골 4도움을 기록 중인 이강인은 이번 대회 최우수 선수로 떠올랐다. 아저 이강인 뿐이라. 광주·전남 출신인 엄원상·김정민·황태현 등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골문을 굳건하게 지킨 이광연의 날렵 솜씨는 눈이 부실 정도였다. 여기에 매의 눈과 여우의 지혜를 지닌 정정용 감독

의 감작적인 지휘가 더 해졌다. 그동안 솔한 대표팀이 나섰지만 이루지 못했던 우리 축구사에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한 U-20 대표팀에게 이제 마지막 정상만 남았다. 오는 16일 오전 1시(한국시간), 이탈리아를 1-0으로 제압한 우크라이나와 우승을 다툰다. 내친 김에 우리 대표팀이 마침내 우승컵을 품에 안아보았으면 한다. 우리 여자 축구는 FIFA 주관 국가대항전인 U-17 여자월드컵(2010)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그러나 남자축구의 경우 박종환 감독이 이끌었던 U-20 멕시코대회(1983)와 2002 한일월드컵에서 성인대표팀 4강 진출이 최고다. 카타르와 일본은 우리에 앞서 U-20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지만 모두 준우승에 머물렀다. 따라서 우리 대표팀이 이번 대회 우승컵을 차지하게 되면 아시아를 통틀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다. 대표팀을 이끄는 정정용 감독은 “한국 축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여주었고”고 자평했다.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의 기개를 보여주길 바란다.

기생충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속어로 “이 기생충 같은 놈아”라는 말이 있다. 이는 성인인 20대 후반 이상의 남자가 집에서 백수처럼 빈둥빈둥 놀 때 주로 쓰인다. “혼자 힘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집에서 주는 밥만 축내냐”는 할인이 ‘기생충’이라는 단어에 합축돼 있다. 기생충은 또 남이 먹는 음식에 빼앗아 먹는 탐욕의 상징으로도 비유된다. 생물학적 관점으로 분류하면 기생충은 우리 몸에 기생하는 매우 작은 생물체다. 몸 속에 들어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의 영양분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성장이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여러가지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약수터

기생충은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일 수 있으나, 숙주 등에 붙어 최소한 기생생활을 해야 한다. 또 기생충은 핵막이 있는 진핵생물이 아니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미생물들은 핵막이 없어 기생충이 될 수 없지만 벼룩과 빈대는 사람 몸에 붙어 피를 빨면서 영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기생충으로 분류된다. 인체에 기생하는 기생충 가운데 가장 긴 기생충은 광절열두조충이다. 이 광절열두조충은 길이가 10미터에 달한다고 한다. 몸안에 있어도 아프거나 특별한 증상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생충이 기생생활을 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생명을 이어가는 자손의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제72회 칸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달 30일 개봉한 이후 전국 1천578개봉관에서 700만여명의 관객이 몰리며 또 다른 ‘1천만 관객 돌파’라는 기록을 달성할 것인지 관심이 높아졌다. 기생충은 가난한 가족과 부자 가족이 얽히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다. 특히 우리 사회의 무능하고 무기력한 공권력과 기득권층을 상징하며 인간화된 기생충이 주제를 모르고 드러내는 모습을 상징화해 담았다. 또 우리 사회의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문제점을 대저택과 반지하방으로 나눠 단도직입적으로 비유한다. 빈곤의 굴레와 세습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방법을 잃어버린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어떤가. 돈과 명예, 권력을 위해 누군가에 둘러붙어 자신을 망각한 채 살고 있진 않나. 꿈금이 따져볼 일이다. 김욱경 문화체육부 부장대우 okkim@srb.co.kr

광주·전남 대표 정론지 **무등일보** 1988년 10월10일 창간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3(일간)

회장 조덕선	시장 발행·편집인 장인균	주필 김영태	편집국장 강동준
주소 (우) 61234 광주시 북구 체봉로 324(중흥동 700-5) SRB미디어빌딩 5층 광고접수 (062)606-7772 FAX (062)383-8765	대표전화 (062) 606-7700 구독신청 (062)606-7776	경제부 (062)606-7713 뉴미디어부 (062)606-7760	사회부 (062)606-7730 지역사회부 (062)606-7723
편집부 (062)606-7750 문화체육부 (062)606-7737	정치부 (062)606-7722 사건부 (062)606-7762	법률부 (062)606-7713 사설부 (062)606-7760	지정사회부 (062)606-7723

구독료 한달 10,000원·1부 500원 | 독자재보 062-606-7730·FAX 062-606-8765 | E-mail mdilbo@srb.co.kr
홈페이지 http://www.mdilbo.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dilbo7700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언제 어디서든 광주를 한눈에!”
가장 빠른 광주뉴스
사랑방 뉴스를
무등일보·뉴스가 함께 만듭니다